

탄소중립 신기술 'KEET 2025', 1만7400명 다녀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5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대전(KEET 2025)'에 관람객 1만7400명이 다녀가고, 524건의 구매상담 실적을 내는 등 성황리에 폐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KEET 2025'는 광주시, 전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 동반성장위원회, 코트라가 주관한 호남권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기후환경 산업전으로, 국내 215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418개 전시부스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에너지 효율, 수소연료전지차, 탄소중립 기술 등 다양한 첨단기술과 제품이 소개됐다. 특히 한전KDN 전시관은 재생에너지 감시제어장치, 수소도시 플랫폼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해외수출상담회, 동반성장페어와 광주기후에너지 정책 세미나 등 18개의 부대행사도 높은 관심 속에 개최됐다.

전시회 기간동안 1만7400여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이 중에는 국내외 바이어도 다수 포함돼 활발한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됐다. 총 524건의 구매상담 성과를 거뒀다.

동반성장페어에서는 79개 대기업과 136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432건의 1:1 기업 매칭 상담이 이뤄졌고, 약 458억 원 규모의 상담액이 기록됐다.

215개 기업·단체, 418개 부스 운영... 한전KDN, 수소도시 플랫폼 눈길
524건 구매상담... 대기업-중소기업 매칭상담 432건 약 458억 규모 성과
에너지기후포럼·야생동물 사진전·생활용품 만들기 등 친환경 체험 호응



KOTRA 수출상담회에서는 15개사의 해외바이어가 참가해 92건의 상담을 진행, 약 900억원(660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와 함께 해외 진출의 가능성도 높였다.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도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 체험 행사 '넷제로 마켓(Net-Zero Market)'은 큰 인기를 얻었다. 관람객들은 야생동물 사진 전시회 ▲제로웨이스트 생

활용품 ▲천연 수제 화장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몸소 느끼는 시간을 보냈다.

부대행사로 열린 '에너지·기후포럼'에서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등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산업계·학계·정책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과 협력 방향

을 공유했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전시회로 "산업계와 시민이 함께 기후위기 대응 해법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2045 탄소중립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지역 농축산물, 온라인 판로에 날개를 달다” 나주우체국, 전자상거래 설명회 성료

나주우체국(국장 박래진)은 지난 7월 8일(화), 나주우체국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상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실질적 소득 증대를 위한 자리로, 우체국의 공공 플랫폼을 활용한 판로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2025년 온라인 유통 트렌드 소개, 우체국쇼핑 입점 절차 및 상품 관리 요령, 마케팅 전략과 물류 연계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이뤄졌다. 특히 우수 입점사례 및 지자체 협력방안 등이 소개되었으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실무 중심 질의응답이 이어져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박래진 나주우체국장은 "우체국쇼핑은 전국적인 신뢰도와 공공성을 갖춘 플랫폼으로, 지역 상품의 온라인 유통 확대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며, "앞으로도 나주우체국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소상공인과 농가의 판로 확대 및 소득향상에 실질적인 도

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나주우체국은 나주시와 협력하여 우체국쇼핑 내 나주 브랜드관 개설을 추진 중이며, 지역 생산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과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생산자는 "온라인 판로에 대해 막연했던 부분들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이 해소되었다"며 "우체국과 함께라면 믿고 도전해 볼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전남도, 여름철 농업용수 확보·공급 총력

안정적 공급 위한 농업용 저수지 3천207개소 선제 점검

총 3천207개소의 농업용 저수지 가운데 수해면적 대비 저수용량이 부족하거나 매년 농업용수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중점관리저수지 46개소에 대해서는 저수율 5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인근 관

정, 양수장 등 비상급수 장비와 인력을 우선 투입해 물체우기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기상정보와 연계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관정 개발, 간이양수장과 송수관로, 둠벙

설치 등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용수공급 대책 수립 등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 농업용수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물 부족은 단기간에도 작물 생장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어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농업용수 확보와 공급에 만전을 기해 도민이 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일 기자

전남도, 식품 중소기업 아세안 수출 전략 모색

동부본부서 전남포럼... 아세안시장 한상 네트워크 활용 제시

전라남도는 14일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제286회 전남포럼'을 열어 전남 식품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했다.

'아세안 식품유통 한상네트워크'를 통한 전남 식품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도·시군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연자로 나선 이장섭(전남대학교 교수) JS글로벌한상연구원장은 그동안 전남대 글로벌디어스포라연구소 연구교수,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산업과 중소기업 육성, 해외 진출 전략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이어왔다.

이장섭 원장은 강연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아세안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남 식품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현실적 기회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해외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

한 전략적 유통채널 확대, 아세안 시장 내 유통구조 분석, 전남 특화 브랜드 전략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남 식품기업은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한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 중소기업도 충분히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이 해외 시장과 연결되도록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수출 보험료 지원 등 글로벌 수출 유망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의 맞춤형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수출 기반 확보에 필요한 여건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인 기자

HD현대삼호, 광양항 자동화부두 항만크레인 제작 착수

HD현대삼호(대표이사 김재을 사장)가 전남 광양항 자동화부두에 설치할 항만크레인 제작에 본격 착수했다.

HD현대삼호는 지난 11일 대불공단에서 회사 임직원들을 비롯해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항 자동화부두 컨테이너크레인 제작 강제절단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총사업비 2,059억 원이 투입되어 오는 2029년 1월 납기를 목표로 진행 중인 이번 사업에서는 자동화부두 3-2단계 4선석에 더블 트롤리 안벽 크레인(DTQC, Double Trolley Quay Crane) 8기가 설치된다.

DTQC는 컨테이너 선적과 하역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 싱글 트롤리보다 한 단계 진화한 무인 자동화 크레인이다. 바다쪽으로 약 68m까지 붐을 뻗을 수 있고, 컨테이너를 최대 53m 높이까지 들어올릴 수 있다. 또한, 최대 1만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갑판 위에서 최대 12만 적재된 컨테이너를 시간당 35개까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정도 규모의 크레인은 세계 주요 허브항만에서 사용하는 최고 사양에 준하는 성능으로, 초대형 선박의 작업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특히, HD현대삼호의



HD현대삼호는 지난 11일 대불공단에서 회사 임직원들을 비롯해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항 자동화부두 컨테이너크레인 8기 제작 강제절단식'을 개최했다.

DTQC는 지난 2024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며 국제적으로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다.

HD현대삼호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

로 인정받고 있는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납기 내에 모든 공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김희선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